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로 노안·백내장수술 한번에



건강 바로 알기
노안·백내장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

골프를 즐기는 한모(57)씨는 골프장에서 공을 치려다가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겨 안과를 찾았다. 평소 가까운 거리만 잘 안보여 노안이라 생각했는데, 검사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술을 받기 위해 검사와 상담을 진행한 백씨는 백내장 수술과 함께 노안까지 교정할 수 있다는 안과 전문의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한씨는 "50대에 백내장 진단을 받아 허탈했지만 오히려 노안까지 교정할 수 있어 만족했다"며 "돋보기에서도 벗어나고 뿌옇게 보였던 시야도 좋아져 수술받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해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에게 들어보자.

◇3대 수술 중 1위 백내장= 백내장은 노화로 인한 질환으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 중 93.7%가 갖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백내장 환자는 2013년 109만8495명에서 지난해 131만7592명으로 5년 새 약 20%나 증가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3대 수술 중 1위로 꼽히며,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수정체는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수정체도 노화돼 혼탁해지고 딱딱

고도근시·난시·백내장·노안 교정

사회생활 활발한 중장년층 인기

환자 직업 등 고려 렌즈 선택

길이·깊이·각도 정확하게 삽입

해져, 백내장이 발생한다. 백내장이 있으면 눈안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 어두운 곳 보다 밝은 곳에서 증상이 심해진다. 이외에도 ▲눈부심 ▲눈 침침함 ▲시력 저하 ▲사물이 겹쳐보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 생긴 백내장은 좋아지지 않고 수술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방치하면 녹내장이 추가로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를 하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지는 정다.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인데, 혼탁해진 수정체를 꺼낸 후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주는 것이다.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 최근 백내장은 수술과 동시에 노안과 난시를 교정하는 특수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맞춤형 백내장 수술'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수정체 뿐이었다. 원거리나 근거리 중 한 곳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거리가 잘 보이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했다면 책·신문 등 근거리를 볼 때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점이 여러 개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인기다. 원거리와 근거리는 물론 중간거리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노안까지 교정이 가능하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신문

이나 독서, 컴퓨터 작업 시에 돋보기 없이도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거리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최근 수술 연령대가 젊어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노안·백내장 수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중하게 개인의 눈 상태, 생활 습관, 주로 사용하는 작업 거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근시·원시·난시 등 복합적인 굴절 이상을 예측하는 정확한 도수 계산 능력과 풍부한 수술경험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추천해야 한다.

◇칼 대신 레이저로 수술= 특히 신세계안과는 카탈리스(CATALYS) 레이저 백내장 의료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수치가 적용된 레이저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도대로 오차 없는 수정체낭 절개가 가능하다. 환자 개인의 눈 상태를 고려한 맞춤 수술이 가능한 만큼 눈에 들어갈 다초점 인공수정체 타입부터, 개인의 눈 상태에 맞게 입력된 절개 가능하다. 또 인공수정체 삽입시에도 의도한 길이, 깊이, 각도로 정확하게 삽입돼 질 좋은 시력을 기대할 수 있다.

집도의의 눈이 아닌 3D OCT 장비를 통해 안구 정보를 수집해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 정확성을 높였으며 수술 중 안구 내 기구 사용과 초음파 사용이 최소화되면서 각종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그 외에도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칼을 사용하지 않아 오차 범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나에게 맞는 렌즈 선택하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서 수술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렌즈를 선택하는 일이다. 삽입하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 특정거리의 시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신세계안과 김재봉 원장이 먼거리와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등 3가지 초점이 우수한 심포니 렌즈 시술을 하고 있다.

때면, 렌즈삽입 후 30~40cm의 거리는 잘 보이지만 PC와 눈 사이의 거리인 70~80cm의 거리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시력상태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렌즈가 있어 수술 전 환자의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 취미, 근거리 정도, 야간활동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렌즈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재봉 원장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내 눈 상태에 맞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잘 선택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선택이 평생 시력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진의 경험이 풍부한지,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자녀가 ADHD면 부모가 치매 걸릴 위험 커져”

치매 34%·알츠하이머병 55% 유병률 높아...조발성 치매 위험도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 저널에 논문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주의력이 떨어져 산만하고 충동적인 과잉 행동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ADHD는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증상이 남는다.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3%가 이 질환을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환경적 요인이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유전적인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특히 카테콜아민(협알 조절 호르몬) 대사 유전자 등 몇몇 유전자가 이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녀의 ADHD가 유전적으로 부모의 치매와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녀가 ADHD이면 부모나 조부모, 삼촌·이모 등의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게 요지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과학자들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가 발행하는 저널 '알츠하이머병과 치매(Alzheimer's & Dementia)' 온라인판에 논문으로 실렸다.

논문의 제1 저자인 의료 전염병학 생물통계학과 장려(Le Chang) 박사는 "ADHD와 치매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데 관여하는 유전적, 환경적(혹은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공통 요인의 존재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면서 "하지만 기저 메커니즘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출생한 스웨덴 주민 200만 명과 이들의 부모, 조부모, 삼촌·이모 등 500만 명을 대상으로 ADHD와 치매의 상호 연관성을 조사했다.

자녀 세대 코호트(특징을 공유하는 집단) 200만 명 가운데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3.2%였

다. 연구팀은 이들 ADHD 환자의 부모, 조부모, 삼촌·이모 등이 얼마나 치매에 걸렸는지 추적해 대조군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ADHD 환자의 부모가 치매에 걸릴 위험은 대조군(ADHD가 없는 피험자)의 부모보다 34% 높았다. 가장 흔한 치매 유형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은 ADHD 환자의 부모가 55% 높았다.

ADHD 환자의 부모는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을 때 조발성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컸다. 하지만 추적 연구 기간에 부모 세대 코호트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사례는 0.17%에 그쳤다.

유전자의 25%를 공유하는 조부모도 삼촌·이모 코호트에선 ADHD와 치매의 연관성이 약해졌다. 실제로 ADHD 환자의 조부모가 치매에 걸릴 위험은 대조군보다 10% 높아, 부모(34%)의 3분의 1을 밑돌았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렌즈 끼면 눈 충혈? 사용 멈추세요”

식약처, 산소 투과율 연관...사용목적·시간·환경 고려해 선택

콘택트렌즈 착용 시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실핏줄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콘택트렌즈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눈의 각막에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 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눈의 각막에는 혈관이 없어 외부 공기와 눈물에서 산소를 공급받는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 공급이 방해받는다.

콘택트렌즈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산소 비율을 '산소 투과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콘택트렌즈 재료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산소투과율은 콘택트렌즈의 시험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착용감이나 착용 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다른 항목으로는 콘택트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흡수율'이 있다. 흡수율이 높은 제품은 촉촉해 착용감이 좋

지만,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하는 만큼 수분 증발도 빨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착용하는 경우 오히려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다.

흡수율은 하이드로겔, 실리콘 하이드로겔처럼 수분 함량이 높고 말랑한 재료로 만드는 소프트렌즈만 측정한다. 유리, 아크릴 수지처럼 수분 흡수를 못 하는 단단한 재료로 만드는 하드렌즈는 측정하지 않는다.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전에는 안과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눈 상태를 정확히 검사하고 착용 목적, 착용 시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응이 쉽고 움직임과 이물감이 적은 소프트렌즈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눈물 순환과 산소 공급이 원활한 하드렌즈가 더 잘 맞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